불교대학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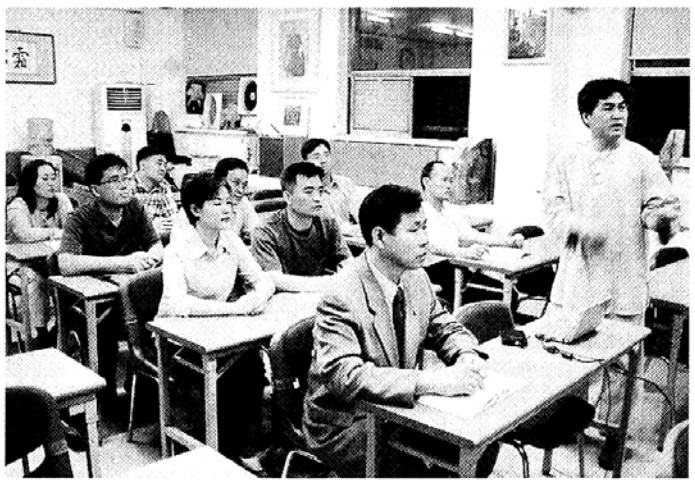
⑫ 만해대학

재학생 평균 연령 30대 초반. 강사진 5명 모두 포교현장에서 발로 뛰는 재가법사. 청년불교 활동가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근본불교'와 '수행론' 중심의 순환 커리큘럼. 작지만 알찬 '젊은 대학', 만해대학(학장 석주 스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 '청년 만해'를 꿈꾸며 15명의 청년불자들이 서울 수송동 만해교육관에 모여 든다. 이들이 이 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일선 포교현장에서 잔뼈가 굳은 강사진이 전하는 '살아있는' 강의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포교분야 박영동 교법사(동대부고)와 백남석 법사(대불련 지도법사), 사찰문화 연구가 한정갑 법사(불교문화연구원), 근본불교 전문가 송위지(한국외대) 교수, 백도수(동국대 박사과정) 법사. 이들 교수진이 토해낼 열강만으로도 이 대학의 '청불(靑佛) 학풍'을 대변한다.

만해대학 학풍은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자주 독립정신과 불교혁신론 등을 펼친 만해사상을 이 대학 설립이념으로 하는 만큼, 교과과정은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수행하는 청년불교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해대학은 〈만해사상론〉을 비롯해, 〈생활 속의 실천수행〉과 〈불교수행론〉이란 불교입문 과목, 근본불교 중심의 〈부처님의 위대한 삶〉, 〈불교사상〉, 〈불교사의 바른 이해〉, 〈비교종교학〉 등 총 7과목을 개설했다.

또한 만해대학은 학생회와 신도회 사이에서 청년층 불자들이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여름과 겨울 방학에 다양한 공개강좌를 열고 있다. 이미 설립 초부터 만해대학은 어린이, 청소년법회 운영 실무강좌 및 청년회 및 신도회 활동지침 특강 등의 개설은 물론, 1박2일 간 실시하는 불교문화 유적을 찾아가는 '탐방학습', 참선 실수 등의 수행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한국불교를 이끌고 갈 핵심적 '일꾼'은 바로 청년층 불자임을 강조한 만해대학의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다.



◇5일 대불청 만해교육관에서 열린 만해대학 2학기 개강법회 모습.

대불청 부설…오늘의 '만해' 배출이 목적

교과편성 생활속의 실천·수행 중점

내년 미얀마등 해외불교과목 개설 계획

만해대학은 1988년 30여명의 청년불자의 신청을 받아 2개월 과정의 교양강좌로 문을 열었던 만해학당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서울불교청년회 연수원에서 운영됐던 만해학당은 열악한 재정상의 문제로 잠시 중단되는 아픔도 겪었다. 이후 1996년 3월 만해대학 제1기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 때, 만해대학은 2학기 1년제로 확대 개편되고, 정규반과 통신반으로 나눠 대학문을 다시 열게 됐다. 첫 해 5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만해대학은 지금까지 청년불자 700여명을 배출, 명실공히 '청년불교 양성 교육도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만해대학 김현자 교학처장은 "청년조직인 대불청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대학인 만큼 재정이나 교과과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부터는 환경, 통일, 봉사 등의 NGO 관련 사회활동과 함께 미얀마·티베트불교 등의 해외불교 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738-1920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향후 사찰학생회 지도법사로 활동

10기 재학생 박승철 법우

"청년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박승철(29·하나로통신 운용팀)씨. 그는 무엇보다도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알았던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1년 전부터 서울 영화사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박 씨는 청년회 발전 방향성 정립에 대해 고민을 해왔는데, 강의를 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생회 지도법사로 활동하겠다는 박 씨는 "교수님의 포교경험을 빠짐없이 챙겨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어류14종·붉은귀거북 등 금지

황조롱이·버들치·재첩등 권장

조계종, 방생지침서 각 사찰에 배포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는 생태적인 방생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방생지침서(사진)를 발간, 3일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무분별한 방생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인위적 간섭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며 "외래종에 대한 무분별한 방생의 역기능이 현재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불교계의 방생문화는 생태방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방생지침서 발간 이유를 밝혔다.

이번 방생지침서에는 부루길, 배스, 이스라엘 잉어 등 14종의 어류와 붉은귀거북, 사육된 꿩과 기러기, 수입동물인 꽃사슴 등이 방생금지 종목으로 지정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황조롱이, 버들치, 재첩, 넙치를 방생권장 종목으로 꼽았고 사찰생태기행, 사형제 폐지운동, 장기기증, 사후회장 서원운동 등을 바람직한 방생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로 지정했다. 또한 방생 장소와 방생 시기, 방생물의 개체수 등도 방생에 앞서서 꼭 고려될 내용이라고 지적됐다.

방생지침서는 그간 불교계 일각에서 문제가 되어오던 어류방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자비행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1년여의 사례수집과 연구성과를 통해 발간된 것이다.

방생금지 사례	방생권장 사례	
부루길, 배스,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나일틸라피아, 철갑상어, 무지개송어, 칼납지루, 버들개, 자가사리, 가시고기, 미꾸라지, 비단잉어, 금붕어 등 어류 14종 붉은귀 거북, 사육된 꿩과 기러기, 수입 꽃사슴, 침소개구리	방생종목	황조롱이, 버들치, 재첩, 넙치
	문화 행사 및 캠페인	철새모이주기, 산나물 씨 뿌리기, 사찰생태기행, 환경캠페인, 사형제 폐지운동, 헌혈, 장기기증, 화장서약

한편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위원회는 방생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방생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환경을 저해하는 방생이 시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는 필자의 개인사정으로 한주 쉽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당장은 프린터가 필요한 남매

"의사의 꿈 꽃피우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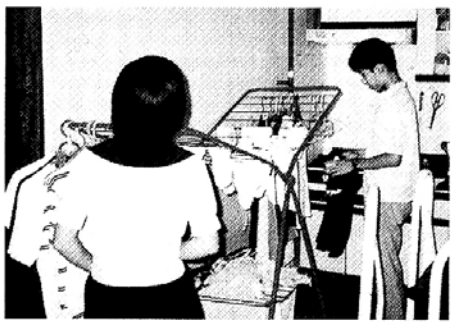
전국이 태풍 루사가 남긴 상처로 신음하고 있을 때,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최병환(17, 남양주 동아고등학교1) 최은영(15, 남양주 미금중학교2) 남매의 집을 찾았다. 나팔꽃이 남매의 보금자리인 연립주택 1층 베란다를 타고 꽃망울을 툭 터트리고 있었으나, 집안은 휑한 느낌만 들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한대에 아무것도 올려지지 않은 선반 하나, 빨래건조대 하나, 그리고 남매들 뿐.

자신들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엉거주춤 앉아 있는 모습이 이런 자리가 꽤나 어려운 모양이다. 남매가 이렇게 남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다.

"제가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간경화로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간경화 선고를 받고 나서도 아버지는 술을 끊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시기도 많이 했구요. 결국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간경화 아버지 타계…얼마뒤 어머니도

정부-각단체 후원금으로 어려운 생활



◇남매가 다정하게 빨래를 건조대에 널고 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말투가 제법 어른스럽다.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망도 있을 법 한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툭툭 내뱉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 생계는 어머니가 도맡았다. 낮에는 집 근처 봉제공장에서 미싱일을 하고, 밤에는 집안 살림을 했다. 너무 무리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상처가 컸을까. 어머니도 덜컥 자궁경부암을 선고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채 1년이 되지 않아서였다.

"처음 2~3개월 동안은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했어요. 제가 어려서 잘은 모르겠지만 병원비가 부담이 되신 것 같아요. 그 후 1~2년 동안은 집에서 살림을 하시며 통원치료를 받으셨구요. 그러다 거동조차 어려워 집에서 누워만 계셨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는 살던 집 전세금을 빼 충당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 뒤, 생활비는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생계급여로 버텼다.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도 행복했다. '어머니라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조그만 행복도 작년에 사라져버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건 보험금 조금. 이것저것 다 제하니 단돈 3천만 원이 남았다. 그 돈으로 지금의 보금자리로 옮겼다.

병환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이다.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저녁 9시 쯤. 이후에는 인근 학원 원장선생님의 배려로 무료로 보습학원에 다닌다. 마치면 12시.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길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온다. 어머니가 아프신 것을 보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다지며 발끝에 힘을 준다.

은영이는 꿈 많고 가지고 싶은 것 많은 중학교 2학년처럼 보이지 않는다. 전에는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가졌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시큰둥하다. 하교 후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가느라 바쁠 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때운다.

필요한 것이 뭐냐는 질문에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프린터요'라고 대답하는 병환이. 모든 일에 시큰둥한 은영이. 병환이 은영이 남매가 집 앞에 핀 나팔꽃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의견을 표출할 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주소:472-080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00-1 미금연립A동 104호

전화번호:031-569-3713

후원계좌:농협 204030-52-145237 (예금주 최병한)

남동우 기자

불가의 비법과 선인의 비전을 합방한 기적의 신물질!

"화림한방화장품"은 자연의 순수 한방약재를 주원료로 하여 고대 동양 미인들이 애용하던 주안술을 이용하여 당사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출원 준비중인 제품이다.
생약성분에서 추출한 기적의 신물질 "전단물질"이 미백효과, 피부 노화방지, 기미 및 각질제거, 주름제거 등 각종 피부고민으로 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주며 모든 여성들을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피부, 항상 촉촉히 젖어 있고 윤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준다.

출시 품목(화장품)

◈ 한방에센스 크림 ◈ 한방베이스 크림 ◈ 한방미백크림
◈ 한방 아이크림 ◈ 한방 영양크림 ◈ 한방 밀크, 스킨 로션

출시 품목(비누)

◈ 서시한방비누(여드름 제거용) ◈ 옥용한방비누(피지 제거용)
◈ 수다라한방비누(미백용/클린싱 크림효과)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화장품 및 비누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Cosmetics (주) 화림한방화장품
www.hrcos.com

전국지사◈대리점모집

"화림한방바이오"의 제품들은 불가 선사의 문중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제와 구증구폭"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은 식사를 즐기면서도 살을 줄일 수 있고 요요현상이 전혀없으며 다이어트 최대 난제인 복부비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장을 청소하여 인체의 체지방을 제거함으로써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하며 몸의 가뿐함을 만끽할 수 있다. 선식은 성인을 위한 건강식, 청소년을 위한 영양식, 유아를 위한 이유식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새로운 개념의 선식이다.
향은 천연향으로 제조되어 악취제거,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여 제사용으로 뿐 만 아니라 가정, 사무실, 고시원 등 일상 생활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

출시 품목(식품/향)

◈ POINT24 - 최상의 다이어트 식품(식사를 즐기면서...)
◈ 달마선식 - 다이어트 식품 겸용 건강선식
◈ 화림비향 - 새로운 개념의 향, 먹을 수 있으면서 피우는 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Bio (주) 화림한방바이오
www.hrbio.com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 Tel : 053)313-2711~15 Fax : 053)313-2716